

中·日 ‘반값 로봇’ 저가 공세 국내업계, 반덤핑 제소 고려

출혈경쟁 통해 영향력 확대
국내업체 마땅한 대응책 없어
로봇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도

글로벌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해외 저가 공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봇업계가 해외 저가공세에 맞서기 위해 업계 차원의 반덤핑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본·중국 업체들의 산업용 로봇업체들이 내수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중국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의 최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 현장을 주요 타깃으로해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국내 완성차 브랜드가 발주한 산업용 로봇 입찰에서 각각 일본의 파나시(Fanuc)와 중국의 쿠카보틱스(KUKA)가 저가 입찰을 통해

수주에 성공했는데, 이들 업체들은 중형모델 기준 현지판매 가격 대비 28%~44% 저렴한 가격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저가의 일본산 다관절 산업용 로봇이 대량 유입돼 국내 로봇 시장이 크게 흔들린 사례도 있다. 당시 일본 업체들은 기존보다 20% 이상 가격을 낮춰 대규모로 로봇을 수출했고 이는 국내 업체들에 큰 위협이 됐다. 이에 대응해 재정경제부는 일본산 다관절 산업용 로봇에 대해 2005년 4월부터 5년간 4.51%~10% 수준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고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은 빠르게 안정됐다.

세계 각지에서 로봇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로봇 산업에서 압도적인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신규 배치된 로봇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은 지난 2022년 29만 258대에 달하는 산업용 로봇을 새롭게 설치했다. 전년 대비 5% 수준의 증가지만 지난 2020년 대비 크게 57% 증가한 2021년 기록보다 많은 로봇이 설치됐던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 로봇 설치

수가 9% 증가한 5만 413대로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3만 1716대에 달하는 로봇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이는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한계 성장을 보였다.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332억달러에서 2026년 741억달러까지 연평균 17.4%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로봇산업의 전망은 장밋빛 미래만 있지는 않은 것으로 염려된다.

해외 업체의 저가공세 앞에 HD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국내 업체들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난이 심화될 경우 국내 로봇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HD현대로보틱스 관계자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며 “해외 업체들의 부당한 판매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3일 개소식에 참석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왼쪽 세번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가운데),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 참모총장(왼쪽 첫번째),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방산공장 설립

韓 방산업체 최초 해외 생산기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질롱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H-ACE)을 완공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 설립 사례다.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 한국 및 호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23일 H-ACE 개소식을 열었다. 약 15만㎡ 규모 부지에 세워진 H-ACE는 본관, 생산동, 조립장, 주행시험장, 사격장 등 총 11개 시설로 이뤄져 있다.

개소식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국방장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

참모총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H-ACE에서 AS9 자주포와 AS10 탄약운반차의 양산을 시작한다. AS9와 AS10은 K9, K10의 호주 개조 모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AS9와 AS10 각각 30문, 15대를 호주 육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호주 생산기지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한국 및 호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아이오닉5 N, 美 ‘올해의 전기차’ 선정

현대차 3년 연속 올해의 전기차 차지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N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의 ‘2024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는 지난 2022년 아이오닉5, 지난해 아이오닉6에 이어 3년 연속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를 차지했다.

카앤드라이버는 올해 현대차 아이오닉5N과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9, BMW i5 eDrive 40, 메르세데스-벤츠 EQS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테슬라 사이버트럭 등 총 18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아이오닉5N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의 첫 전용 전기차로 84kWh(킬로와트시) 용량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 등을 갖췄다. 이를 통해 최고출력 478kW(650마력), 최대토크 78.5kgf·m를 구현해 주행 성능과 운전의 재미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Ne-시프트, N그린 부스트와 같이 고성능 전기차 특화 기능을 선보이며 전기차운전의 즐거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아이오닉5N이 카앤드라이브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LCC 최고수준 66개 노선 운항... 매출 1조 육박

LCC 상반기 결산

① 제주항공

업계 마형... 전년 대비 매출 22% ↑
하반기 구매기 도입 등 내실 다지기로



제주항공 항공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저비용항공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LCC 업계 마형 제주항공은 노선 다각화와 기재 확보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LCC 계열사(▲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가 합병되면 단숨에 업계 1위가 바뀐다. 에어포탈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세 LCC의 운항편 수와 이용객을 더하면, 운항편 5만 5000편·이용객 900만명 수준이다. LCC 업계 마형 제주항공은 2023년 2만 7851편을 운항했고, 494만 3170명이 이용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최근 사내 메일을 통해 “사모펀드가 보유한 항공사의 M&A 기회가 왔을 때 필요하다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주항공 관계자는 “좋은 매물이나왔을 때 이야기”라면서 “현재는 차세대 항공기 도입, 호텔·지상조업·IT 등 보유 자원 간 시너지 강화 및 노선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14일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2024년 상반기 967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1% 증가했으나, 2분기 ▲영업이익 -95억원 ▲당기순이익 -214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고환율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적자 전환한 것이다. 이에 하반기 전략을 노선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구매기 도입을 통한 원가경쟁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연 확장보다 내실 다지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항공의 노선은 이미 LCC 중 최고 수준이다. ▲제주 ▲김포 ▲무안 등을 포함한 6개 국내선을 운영하며,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괌·사이판 등 60개 국제선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오이타, 베트남 달랏 등에 신규취항 후 준수한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 취항지 모두 80%대 탑승률을 기록했으며, 히로시마 노선의 경우 전체 탑승객 중 46.5%가 일본 국적 승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호텔사업도 함께 하는 만큼 해외 관

광객 유입이 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주력 노선인 일본 노선은 최근 90%대 탑승률을 유지하는 등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연내 인도네시아 발리와 바탕에 취항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노선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구매기 도입을 통한 내실 다지기도 준비 중이다. 제주항공은 B737-8 항공기 50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는 차세대 친환경 기단으로 분류된다. 기존 항공기보다 공기저항을 줄여 연료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등 일부 LCC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다. 진에어는 모기업 대한항공에 B737-8 항공기를 대여하는 형태로 도입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환율 변동에 따라 임차료와 정비비가 크게 변동되므로 항공기를 구매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제주항공의 주 기종은 B737-800 항공기다. 총 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89석 규모의 항공기다.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라이트 좌석 12개와 일반 좌석 162개로 구성돼 있다. 2대는 화물기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고효율을 통한 저비용 사업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경쟁사 대비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s】

LS전선, 희토류 사업 경쟁력 키운다

LS에코에너지-수은 산업육성 MOU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아 희토류 및 전기구동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수은과 ‘희토류 및 전기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희토류 영구 자석 및 전기구동계(구동모터, 인버터 등 동력 전달 장치)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LS전선은 LS에코에너지와 함께 국내 최초로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LS에코첨단소재를 통해 EV와 UAM(도심항공모빌리



지난 23일 서울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희토류 및 전기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오른쪽부터) 구분규 LS전선 대표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티)의 구동모터에 사용되는 세라믹(구리선)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이러한 신성장동력 사업에 약 7000억원의 투자를 검토 중이다. 수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